

지역 소식 통

정읍시, 51개 마을순회
농기계 관리요령 지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욱)는 월동 전 농업기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기계 점검·정비와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수확 작업을 마친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도로와 보관관리 철저로 성능 유지와 수명연장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읍면동 51개 마을을 순회하며 트랙터와 콤팩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의 현장점검과 부위별 관리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기계의 냉각·윤활·연료·전기계통 등을 집중 점검하고, 기종별로 보관요령을 지도한다.

기종별 농기계 보관관리 요령으로 경운기는 쟁기와 로타리 등 작업기에 오일을 발라주고, 트랙터는 클러치를 떼어주며 유압리프트 암을 올려놓아야 한다. 이앙기는 이앙암 스프링이 풀려있는 상태로 두고 육묘상자는 깨끗이 씻어서 30만 이내로 쌓아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예쁜간판꾸미기 공모사업
고창 흥덕 선운대로 선정

고창군이 전북도 2021년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공모사업에 고창군의 흥덕 선운대로 예쁜간판꾸미기(흥덕면 선운대로 3714~3741번까지, 423m)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노후건물 10동의 건물 외벽 정비, 50여개 업소의 간판개선 등의 예쁜 간판꾸미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흥덕면의 주요 중심도로다. 흥덕면과 선운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처음 접하게 되는 중심지이지만 흥덕터미널과 주변 건물들이 낡고, 난립한 불법광고로 경관이 미지와 보행환경을 해치고 있다.

고창군은 선운대로를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지' 고창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문화적 방식의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서부산업도로 '전면 개통'

정읍시, 1.7km구간공사 완료... 물류비용 절감 등 기대
지역개발 여건 혁신위한 SOC 기반 체계 구축 '팔걸어'

정읍시가 지역개발 여건 혁신을 위한 SOC 기반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서부산업도로(작은말고개~상동회관~상동주유소~C·리하다리) 1.7km 구간 공사를 마치고 지난 13일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된 서부산업도로는 총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해 작은말고개 도로부터 초산동 영화아파트까지 약 1.7km 구간을 4차선 도로로 개설한 사업이다.

시는 전체 구간 중 지난 2010년 상동주유소부터 벚꽃로 구간(L=376m, 35억원)과 2018년 작은말고개부터 상동회관 구간(L=900m, 75억원)을 개설했다. 이후 최종 연결구간인 상동주유소부터 상동회관 구간까지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길이 364m, 폭 35m(4차선) 도로를 개설 완료함으로써 서부산업도로가 전면 개통했다.

이와 함께, 서부산업도로 개통 시 신호 교차에 따른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7억8,000만원을 들여 상

동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개설사업을 병행했다.

또한 지난 6일 영화아파트 부근 정읍천 양쪽(벚꽃로~천변로)을 연결하는 C·리하다리(L=73m, 105억원)도 개통한 바 있다.

C·리하다리는 단순하게 정읍천 위를 지나는 교량이 아닌 정읍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기 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상징성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특히, 백제가요 정읍시의 서정과 '향기 공화국 정읍'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야간경관 조명과 각종 행사와 공연 등이 가능한 무대 설치로 정읍천 이용객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코로나 취약시설 선제적 전수검사

요양병원 5개소 등 총 44개소

정읍시가 코로나19 집단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고위험시설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지역 내 요양병원 5개소와 정신병원 1개소, 요양원(생활) 19개소, 요양원(주간) 19개소 등 총 44

개소의 시설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이 다.

시는 이들 시설 중 현재까지 요양병원 4개소와 요양원(생활) 6개소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13일 기준 508명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지역 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수검사 대상 요양

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검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 전남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이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모양성마을 노후주택정비로 활력

600여년을 버텨온 고즈넉한 고창읍성을 앞마당으로 둔 모양성 마을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모양성마을(동산 동촌, 모양, 천북)에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그간 모양성 마을은 고창읍성(모양성) 뒷마을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제한돼 노후주택이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해 10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창군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한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모두 40호

다. 올해 20호를 정비하고, 내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고창군 모양성마을(동산, 동촌, 모양, 천북)에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집수리선정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고창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됐다.

노후주택정비사업은 가구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 포함)의 사업비로 지붕, 담장, 창호, 외벽, 대문 등을 수리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군수는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사업과 직소천 자동차 아영장 확대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예산확보 발품행정

정성호 예결위원장 방문 등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중환무진 누비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 권익현 군수는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사업과 직소천 자동차 아영장 확대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사업은 2023 부안 세계스카우트캠버리와 연계한 동학혁명 및 세계 3대 시민혁명에 대한 VR체험이 가능한 올바른 역사관과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인프라 확충과 3·1운동, 4·19,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정신문화 정립 및 동학의 세계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직소천 자동차 아영장 확대 조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족 증가와 비대면 캠핑수요가 높아지면서 안전거리 확보가 아영장 성공의 필수요인이 됨에 따라 기존 제1 아영장 부지로 계획했던 자동차 아영장을 탐방로 공원계획 전체인 제2아영장 부지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앞서 권익현 군수는 지난 5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2021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단계 증액 및 국비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국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사국악원 · 농악전수회관, 작품발표회 성황

유튜브 '정읍see' 통해 공개

정읍사국악원과 정읍농악전수회관 교수·강사진의 작품발표회가 지난 12일 정읍시체육관에서 펼쳐졌다.

공연의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장면이 담긴 관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로 시작됐다.

관객의 귀를 시원하게 두드리는 윤상호 교수의 창과 관객의 흥을 능숙하게 이끌어 내는 고수 박상주 교수가 합을 이룬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서 남도 음악의 애절한 맛과 경쾌하고 산뜻한 경기음악이 조화를 이뤄낸 장승희 교수의 성금련류 가야금 산조가 이어졌다.

또 새와 바람 등 자연의 청아한 소리를 담아낸 김중배 교수의 이생강류

대금산조 연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춤인 신관철류 수건춤을 선생의 애제자인 김일환 교수가 펼쳐 보였다.

대마는 정읍농악의 꽃이라 불리는 개인 놀이 중 부포놀이를 손석우 강사가 시립농악단의 정읍농악 연주에 맞춰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작품발표회의 공연 영상은 온라인 유튜브 채널 '정읍see'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